



광주 '국제 광산업 전시회' 개막
4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07 국제광(光)산업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광케이블을 살펴보고 있다.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광세기 창조'를 주제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3개국 120개 업체가 참여해 국내외 광산업 신기술 및 신제품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품목은 광통신 부품을 비롯해 LED 등 반도체 광원, 광소재부품, 광정보기기, 광학기기 등 400여 품종 3천여점이다. ▶관련기사 10면
/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법정 계량단위 시행 두달... "kJ, kPa가 뭡니까"

농촌 상거래 혼란

사전 교육·홍보 부족... 고령 농민들 "답답"

"kJ, kPa가 뭐랍니까? 평생 사용 하던 계량단위를 놔두고 들도 보도 못하던 단위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워요."

지난 7월부터 '평·돈·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거래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노령인구가 집중된 농촌지역의 경우 농협이나 자치단체에 의한 계량단위 변경에 대한 홍보나 계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정착까지는 요원한 상태다. 더구나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농기계·용기 기준 등 각종 농어민 시책에 비법정단위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농민들의 혼란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정 계량법 시행과 함께 지자체와 함께

비법정 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법정 단위의 강제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극심하다.

나주시 이모(65)씨는 "60대 이상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눈·평, 고추·근, 참깨·쇠 식으로 거래하는 게 보통"이라며 "수십년 써온 '평'·'근' 단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재료 미터(m)나 킬로그램(kg) 사용을 권장해도 되레 헷갈린다"고 말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분야는 농기계 쪽이다. 법정계량단위에 따르면 트랙터 등 농기계의 출력은 마력(ps)에서 kW로, 유풍기 등의 열량은 kcal에서 킬로칼로리(kJ)로,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포스(kgf)에서 뉴턴(N), 배기량은 cc에서 L, 압력은 kgf/cm² 또는 mmHg에서 킬로파스칼(kPa)로 바꿔 쓰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기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응자지원 기준이 종전의 비법정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어 농기계 업계와 농민들은 비법정 단위를 계속 사용하는 등 법정 계량단위 도입을 정부 스스로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의 응자지원 기준이 종전의 비법정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어 농기계 업계와 농민들은 비법정 단위를 계속 사용하는 등 법정 계량단위 도입을 정부 스스로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로운 계량단위 흥보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끝내 한 성과가 없다"면서 "오랜 기간 써온 계량단위를 바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최근 전국의 성인남녀 1천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법정 계량단위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54.3%로 과반수였지만 불편하다는 답변도 55.7%에 달했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정부나 자체 체계, 그리고 농협 등이 꾸준한 계도와 홍보, 그리고 정책적 변화를 통해 법정단위 사용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부터는 대학까지 책임집니다"

'세째 아이부터 대학 학자금을 시에서 책임집니다.'

목포시가 4일 획기적인 출산장려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목포시의 계획은 단순한

출산장려책에서 탈피해 결혼에서 임신, 임신에서 출산, 출산에서 양육까지를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출산을 장려하는 일종의 '맞춤형'이다. 이런 점에서 대책은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있다.

파격적인 것은 셋째 이상의 아이부터는 대학까지의

목포시 출산 파격 지원 셋째에 4175만원 투자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 출생과 동시에 3년간 매월 10만원씩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목포시는 또 출산 장려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대폭 올렸으며, 전국 최초로 출생아 양육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에서 성장기까지 목포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첫째 아이 1천940만원, 둘째 2천235만원, 셋째 4천175만원, 넷째 이상 5천138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 임산부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및 의료비 지원, 아이 돌봄이, 딸자녀 가구 가장애 대한 취업과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도 도입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이를 위해 연간 320억원씩 모두 1천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대학 89%가 내신 30% 이상 반영

2008 대입 정시모집... 199개 대 18만명 선발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전형 일정
가. 나. 기준: 2007. 12. 20~25
원서접수기간: 다. 기다. 니다. 기나다운: 2007. 12. 21~26

전형기간	기준	기간
기준	기준	2007. 12. 27~2008. 1. 10
기준	기준	2008. 1. 11~2008. 1. 21
기준	기준	2008. 1. 22~2008. 2. 1
기준	기준	2008. 2. 1~2008. 3. 1(3월)

대·광신대·광주대·대불대·동신대 등 27곳 등이다.

교육부가 권고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 이상 치점을 지킨 대학이

현재 수시 모집이 진행중이어서 수시 1학기와 수시 2학기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 모집 인원이 다소 늘어나는 등 변경될 수 있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은 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으로 30%~40%가 목포대·순천대·전남대·광주교대·광주여대·남부대·목포가톨릭대·조선대·한려대·호남대 등 130곳으로 가장 많다. 40%~50%는 명신대·초당대·호남신학대 등 29곳, 50% 이상은 서울

원서 접수 기간은 기군과 나군, 기군 대학의 경우 2007년 12월 20일~25일, 다군과 기/다군, 나/다군, 기/나/다군 대학은 2007년 12월 21일~26일 실시된다. 대학에 따라 인터넷 원서 접수만 또는 창구 접수를 병행 실시한다.

군별 전형 기간은 기군 2007년 12월 27일~2008년 1월 10일, 나군 2008년 1월 11일~21일, 다군 2008년 1월 22일~2월 1일이다.

군별 전형기간 내 모든 전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논술 및 필답고사·면접·구술고사, 실기고사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최초 등록기간은 2008년 2월 4일~11일까지이며 이후는 미등록 충원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전형(정시·주거)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에 있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 단위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교육부 "내신 반영율 30%미만 대학 불이익"

교육부 적자원부는 4일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 미만으로 발표한 대학들에 대해

선전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행·재정적 제재를 결정하겠다.

〈관련기사 6면〉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내신비율을 권고선인 30%를 지키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 권고안에 적극 동참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국장은 "내신 비율을 권고안을 맞추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최종 전형 결과를 분석한 뒤 행·재정적 제재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며 이는 교육부의 당초 방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내신 비율 30%만을 기준으로 행·재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

하는 게 아니다"면서 "내년초 대학들의 전형 결과를 보고 제재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행·재정적 제재 검토 대

상으로 보고 있는 대학은 25% 미만을 적용한다고 밝힌 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이화여대·한양대(20%~25%) 등 일부 사립대 등을

내신 비율 권고치 30%에 못 미쳤다.

전형은 대학별 또는 모집군, 모집 단위별로 디를 수 있으나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

을 활용한다.

내며 제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 표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장을 보였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교육부총리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며 "30% 이상은 권고받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만큼(17.96%)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가 말을 바꾼 게 된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